

# 지혜의 말씀

불기 2563년 12월 / 통권 466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행대광사**



## 證道歌 (증도가)

일 성 원 통 일 체 성  
一性圓通一切性이니

일 법 변 합 일 체 법  
一法遍含一切法이라

하나의 본성이 모든 본성에 두루 통하니

하나의 법이 모든 법을 두루 포함한다.

일 월 보 현 일 체 수  
一月普現一切水니

일 체 수 월 일 월 섭  
一切水月一月攝이로다.

하나의 달이 모든 물에 두루 나타나니

모든 물의 달은 하나의 달로 섭수된다.



# 목 차

## 시와 불교의 만남 · 2

### 생각의 터 · 4

송구영신 / 서경스님

### 불교상식 · 7

부처님의 생애

## 부처님의 말씀 · 11

### 알림마당 · 13

대광사 12월의 행사

고맙습니다

대광유치원 12월 행사계획

어린이법회 12월 활동

동지기도 안내

제19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표지그림/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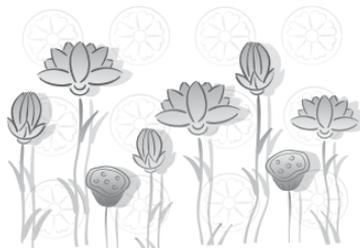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http://www.daegwangsa.or.kr)

● 발행인 · 편집장 / 서경스님

● 주 간 / 이숙경

● 편집 · 인쇄 / 디자인스프링





## 송구영신(送舊迎新)

서경스님 / 대광사 주지

2019년도 막바지 12월이 시작 되었다. 2일에서 4일까지 내년 대중스님들과 신도님들의 공양상을 책임질 김장운력도 잘 회향하였다. 운력에 동참한 신도 임원진을 비롯하여 대광불교대학 동문회원들과 신도님께 감사드린다. 바쁜 시간 속에서도 손을 보태어 운력에 참가한 것이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시간이 되었다면 노동으로 몸은 비록 고달프더라도 기꺼운 보시의 복덕으로 회향될 것이다.

참으로 바쁘고 빠르게 지나가는 해인 것 같다. 다가올 날들이 어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어느해 보다도 세월의 체감 속도가 빠르게 느껴진 날들이었다.

알산 봄 날 싱그러움의 상징이던 신록이 지금은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앙상한 가지만을 남긴 쓸쓸한 분위기를 연출하지만 모진 바람 추위를 견디고 나면 다시 짙을 티우고 푸르름으로 가득한 시간이 함께할 것이다.

연말하면 모두들 사적으로 공적으로 바쁜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 나 역시 사적 공적인 약속으로 12월 한 달은 바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연말에 모임이 많은 것은 아마 지난해를 돌아보고 부족한 점은 반성하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자신을 좀 더 채찍질 하는 시간을 가져 보다 나은 미래를 살아가보자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보통 한 해를 보내는 망년회라 하는 문화는 송구영신(送舊迎新) 옛것을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다. 시간이라는 것은 당연히 과거는 지나가고 미래를 맞이하게 되었다. 간혹 방송이나 신문지상에 회자되듯이 지나친 음주향락 문화에 빠져 지난 날의 안좋은 일들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자기자신마저 잊어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시간조차도 갖을 수 없는 세태를 보면 가슴이 먹먹해져온다.

12월이 되었든 새해가 돌아오는 우리들은 순간 순간 선택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굳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논할 필요도 없다. 지난 한해로 돌아보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성하고 앞으로의 생활에서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불교의 참회(懺悔)가 바로 그것이다. ‘참’이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이요, ‘회’라하는 것은 다시는 그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미래에 대한 다짐이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성찰이다. 과연 붓다의 가르침,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법칙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척도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이해타산이나 욕심으로 인하여 성현들의 가르침이나 사회의 법칙들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여 적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요즈음 그 말을 ‘내로남불’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붓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내가해도 남이해도 로맨스는 로맨스고 불륜은 불륜이다. 스님들이나 처음 불교를 배우는 사람들이 읽는 계초심학문이라는 보조지눌스님의 글이 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부초심지인은 수원리악우하고 친근현선하며 수오계심계등하여 선지범개지하라” 뜻을 풀이하면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악한 벗은 멀리하고 어질고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며 오계고 십계를 받아서 해야할 일을 하고 해서는 안될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정도로 말할 수 있다.

12월을 보내면서 과거의 나쁜 기억은 모두 관속에 넣어 묻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속에 살지 말고 오직 현재 이 순간의 삶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불자가 되길 기원한다.

---

1.) 夫初心之人은 須遠離惡友하고 親近賢善하야 受五戒十戒 等하야 善知持犯 開遮니라



## 부처님의 말씀

### 2. 현실의 관찰

#### 1) 법(法)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나이다. 이법은 현실에서 밝혀진 것이며, 머지않아 과보(果報)가 있는 것이며,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열반으로 잘 인도하는 것이며, 또 지혜 있는 이가 저마다 스스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잡아함경」 「제46. 1238경」

진리를 깨달으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 그 진리의 내용은 부처님의 팔만사천 법문에 이미 밝혀져 있다. 이 진리의 말씀이나 그것을 담은 경전을 바로 법보(法寶)라고 한다. 법, 즉 지니는 보물처럼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거기에는 불교와 삶의 핵심이 담겨 있다. 법은 우리를 해탈과 행복의 길로 안내한다. 법은 누구나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며, 체험하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 효력을 나타낸다. 따라서 ‘법을 깨닫다’ ‘법대로 행한다’는 것은 불교에서 중요한 체험이다.

법의 산스크리트어는 ‘다르마(dharma)’ 이고 팔리어로 ‘담마(dhamma)’ 라고 한다. 이 말의 어원을 찾자면 인도 고전의 『베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베다시대에 법은 리타(rta)로 불렸으며, 그것은 ‘자연계의 법칙’ ‘인간관계의 질서’를 나타내는 용어였다. 팔리어 주석에 따르면 다르마는 ‘인(因)’ ‘덕’ ‘가르



침' '사물(事物)'의 네 가지 뜻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다르마가 불교에서 '법의 내용을 이루는 진리 그 자체', 또는 그 '진리의 가르침'을 나타내는 말이 되어 '깨달음을 보여주는 진리'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미한다.

나아가 법은 존재, 사물이라는 의미로 확대되고 결국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제법(諸法)이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의 법의 의미는 모든 현상을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을 설입시키고 있는 근본적 존재도 법이라고 일컫는다. 이런 법의 개념은 불교의 독자적인 것이다. 이러한 법의 의미에 대해 정리해 보면 이렇다.

첫째,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와 그것을 제자에게 가르치신 가르침을 일컫는다. 삼보의 법보를 비롯하여 일상적으로 법이라고 말할 때 이에 해당된다.

둘째, 존재하는 모든 것, 즉 모든 사물을 일컫는다. 제법무아의 법. 연기에 의해 성립된 존재인 세상의 모든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다. 『금강경』과 같은 대승경전에서 '모든 법의 공한 모양(諸法空相)'이라고 말할 때의 법이 이런 용례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법의 개념은 다양하며, 경전과 논서에 쓰일 때는 진리와 교법이라는 의미 외에도 '존재'하는 의미로 쓰일 때가 많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2) 12처, 18계

초기불교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부처님은 신이나 형이상학적인 원리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세계를 중요시 하셨다. 우리가 두발로 땅을 딛고 있는 이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길인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의 가치는 뛰어나다. 12처(十二處)와 18계(十八界)는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움직이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님께서서는 일체법(一切法)은 십이처에 포함된다고 하셨다. 여기서 일체란 세계 전체요, 모든 존재를 일컫는다.

바라문이며, 일체는 십이처에 포함되는 것이니, 곧 눈과 형색,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촉감, 의지와 법이다.

『잡아함경』 「권13」

처(處, ayatana)란 들어가 머무는 장소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12가지 장소에 들어가 머물며 그 외의 것은 없다는 말이다. 12처란 안(眼)·이(耳)·비(費)·설(舌)·신(身)·의(意)의 6가지 인식주관과, 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법(法)의 6가지 인식대상을 일컫는다. 여기서 6가지 인식주관을 육근(六根)이라고 하고, 6가지 인식대상을 육경(六境)이라고 한다.

안·이·비·설·신·의는 눈·귀·코·혀·몸·의지(마음)이며, 색·성·향·미·촉·법은 행색·소리·냄새·맛·감촉·마음의 대상인 법이다. 눈으로 행색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들으며,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며, 몸으로 촉감을 느끼며, 의지인 마음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와 진리를 안다.

그렇다면 왜 일체가 십이처이며 십이처에 들어가 머문다고 했을까? 그것은 일체, 즉 세계가 주관과 객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주관은 느끼고 사유하는 인식주체를 말하며 객관은 자연환경이요 대상과 이치를 말한다. 인간을 비롯한 해와 달, 하늘은 나는 새와 땅을 기는 동물들, 수다한 갖가지 소리와 냄새도 다 여기에 포함된다. 우리가 실제로 인식하는 세상 중에서 이러한 12처의 범주를 벗어난 존재는 없다.



또한 주관과 객관의 작용으로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하며 행위를 한다. 즉 육근하고 육경의 십이처는 우리들이 보고 · 듣고 · 냄새 맡고 · 맛보고 · 접촉하고 · 생각하는 활동의 세계이며 생활세계이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세계를 떠나서 설명되는 말은 믿을 수 없거나 허황된 말일 수 있으며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가능성 또한 크다.

불교에서는 이 육근과 육경 또한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부처님께서서는 육근과 육경 역시 무상(無常)하며 무아(無我)라고 말씀하신다. 그것은 이 세계가 잠시도 머무름 없이 순간순간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8계(十八界) 또한 일체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용어이다. 12처에다가 6가지 인식의 세계를 합하여 18계(十八界)

라 한다. 계(界, dhatu)란 종류, 영역을 말한다. 여기서 각각의 계는 다른 계와 섞이지 않는 공통의 요소를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성분이 서로 다른 18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18계라고 한다. 말하자면 안계(眼界)부터 의계(意界)까지 6가지 주관세계, 색계(色界)부터 법계(法界)까지의 6가지 객관세계, 6가지 주관세계와 6가지 객관세계가 서로 작용하여 인식이 형성되는 6가지 인식의 세계를 합하여 18계라 하는 것이다.

6가지 인식의 세계를 육식(六識)이하 한다. 즉 눈으로 형색을 보고 인식하는 세계가 안식계(眼識界)이고, 귀로 소리를 인식하는 세계가 이식계(耳識界)이며, 코로 냄새를 인식하는 세계가 비식계(鼻識界)이며, 혀로 맛보고 인식하는 세계가 설식계(舌識界)이며, 의식으로 마음의 대상을 인식하는 세계가 의식계(意識界)이다.



## 부처님의 말씀



## 첫 번째 말씀(숫타니파타)

## 제2품 작은 법문의 품

## 13. 올바른 유행의 경

1. [중생] “지혜가 많고, 강을 건너 피안에 이르러 완전한 열반을 얻고, 자신을 바로 세운 성자께 여쭙니다. 출가하여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없앤 수행승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바르게 유행할 수 있습니까?”
2. [부처님] “길조의 점, 천지이변의 점, 해몽, 관상 보는 일을 완전히 버리고, 길흉의 판단을 버린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유행할 것입니다.
3. 존재를 뛰어넘어 진리를 이해하여, 수행승이 인간계와 천상에 대한 감각적 쾌락의 탐욕을 버린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유행할 것입니다.
4. 수행승이 등 뒤에서 중상하는 말을 버리고, 분노하는 것과 인색함을 버리고 편견과 선입견의 생각을 떠난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유행할 것입니다.
5.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이나 다 버리고, 집착없이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온갖 속박에서 벗어난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유행할 것입니다.
6. 집착의 대상에서 실체를 찾지 않고, 모든 집착에 대한 욕망과 탐욕을 삼가며, 의존함이 없어 아무 것에도 이끌리지 않는다면, 그



- 는 세상에서 바르게 유행할 것입니다.
7. 언어와 정신과 행동에서 어긋나게 살지 않고, 바르게 진리를 알아 열반의 경지를 구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유행할 것입니다.
  8. 수행승으로서 ‘나에게 절한다.’하여 교만해지지 않고, 욕을 먹더라도 마음에 두지 말고, 남에게서 음식을 얻었다고 교만에 취하지 않으면, 그는 세상을 바르게 유행할 것입니다.
  9. 수행승으로서 탐욕과 윤회의 존재를 버리고, 자르거나 결박하여 해치는 것을 삼가고, 의혹을 넘어서 번뇌의 화살을 뽑아 버린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유행할 것입니다.
  10. 수행승으로서 자기 분수에 맞는 것을 알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해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진리를 안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유행할 것입니다.
  11. 어떤 잠재적인 경향이 없고, 악하고 불건전한 뿌리가 뿌리 채 뽑히고, 바라는 것도 구하는 것도 없다면, 그는 바르게 세상을 유행할 것입니다.
  12. 번뇌를 부수고 자만을 버리고 모든 탐욕의 길을 뛰어넘어 자신을 다스리고 완전히 소멸하여 자신을 세운다면, 그는 바르게 세상을 유행할 것입니다.
  13. 믿음 있고, 학식 있고, 결정적인 길을 보고 당파에 있으면서도 당파에 맹종하지 않는 현명한 자로서 탐욕과 성냄과 분노를 삼간다면, 그는 바르게 세상을 유행할 것입니다.



## 대광사 12월 법회 및 행사

- ◇ 12월 6일 송광사 선원대중공양 (오전 8시 진해역)
- ◇ 12월 10일 불대18기 2학기 종강
- ◇ 12월 11일 음력11월 보름법회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12월 20일 동지기도 입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관음재일 다리리기도 (오후 6시 대웅전)
- ◇ 12월 22일 동지기도 회향 (오후 1시 19분)
- ◇ 12월 26일 음력12월 초하루기도 입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12월 28일 초하루기도 회향
- ◇ 12월 31일 타종식 (오전12시 종각)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 동지기도 안내

- 일 시 : 입재 \_ 12월 20일 10시 30분  
회향 \_ 12월 22일 10시 30분 설법전
- 동참금 : 가족축원 3만원
- 동지시간 : 오후 1시 19분
- 문의 및 접수 : 종무소 ☎ 545-9595



## 고맙습니다

### 대광후원회

(10.17 ~ 11.15)

이연숙 100,000	(주)카텍 300,000	원광한의원 100,000	이경화 10,000
김경남 20,000	이금재 50,000	박미애 10,000	찬불단 50,000
정진이 10,000	이봉숙 10,000	공민진 10,000	강란 10,000
홍승운 20,000	정숙자 30,000	정대식 20,000	유미란 50,000
황두관 10,000	유봉악 10,000	김지현 100,000	후원회 100,000
이경화 10,000	법안성 30,000	이미정 50,000	서경스님 50,000
한덕분 30,000	김병문 20,000	홍예현 50,000	

◆ 급식소 후원 계좌: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서부노인종합복지관 후원

심원사 500,000원 / 천자암 500,000원 / 해장사 100,000원 / 무문정사 100,000원  
 진흥사 100,000원 / 자비암 100,000원 / 천웅사 100,000원 / 약사암 100,000원  
 송림사 100,000원 / 지장선원 100,000원 / 여여사 100,000원 / 보국사 100,000원  
 흥국사 100,000원 / 해안사 100,000원 / 호국사 100,000원 / 시라회 200,000원  
 염불봉사회 200,000원 / 불대총동문회 200,000원 / 대광후원회 300,000원  
 관음회 100,000원 / 신도회 200,000원 / 찬불단 200,000원 / 유치원 500,000원  
 포교사단 100,000원 / 산악회 100,000원 / 미담원 500,000원 / 김차순 100,000원  
 강상회 100,000원 / 강상호 100,000원 / 조형식 200,000원 / 지마트 두유 3000개  
 경남은행 수건 3000장

#### ♥ 신중기도 공양

진성화 100,000 / 이미정 50,000 / 이애경 50,000  
 이경순 50,000 / 김미화 50,000 / 조영자 50,000  
 김차순 50,000 / 박은경 50,000

#### ♥ 석굴암 참배 공양

임정훈 100,000  
 불대18기 100,000



## 12월 대광유치원 행사계획

### 1. 대광유치원 김장

○ 일시 : 2019년 12월 4일 ~ 6일

### 2. 대광겨울축제

○ 일시 : 12월 24일(화)

○ 대상 : 원아전체 \_ 원내행사

### 3. 겨울방학식

○ 일시 : 12월 24일(화)

○ 방학기간 : 2019. 12. 25 ~ 2020. 1. 9.

○ 개원일 : 2020. 1. 10.(금)

## 12월 어린인법회 활동

### 1. 경남지구 송년법회

○ 일시 : 2019년 12월 14일(토)

○ 장소 : 양산통도사 「통도환타지아」

### 2. 2학기 법회 증강

○ 일시 : 2019년 12월 21일(토)



# 佛紀 2564年 대광사 신도기본교육 및 제19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안내

진흙에서 핀 은은한 연꽃이 세인을 매료시키듯 부처님의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인가를 가르치시고 이끄셨습니다.

대광사에서는 올해도 훌륭한 스님과 법사님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신도기본교육 및 불교대학을 개강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많이 동참하시어 값진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신도기본교육 제19기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신도기본교육	대광불교대학
대 상	미수계자 및 초심자 누구나	신도오계 수계자
교육기간	2020년 3월 3일~3월 25일	2020. 3. 31(화)~12. 9(화)
수 계 일	2020년 3월 28일	(1년 과정 - 2학기제)

- ▶ 교육일시 : 매주 화·수 오전 10시~12시
- ▶ 접수기간 : 2019년 8월 1일부터 ~ 2020년 2월 말까지
- ▶ 수 강 료 : 신도기본교육 50,000원 (신도증발급, 수계비, 수련회비 포함)  
불교대학 1학기 150,000원 (교재비, 성지순례비, 수련회비 포함)
-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 ▶ 강의내용

의 식	예불 및 의식(찬불가)
예 절	사찰예절, 신도오계
교 리	부처님의 생애, 사성제, 팔경도 등
불 교 문 화	법당, 탑, 탱화, 벽화, 문학, 성지순례
신 행	참회와 기도, 사경 보시와 자비실천, 수련회
불 교 역 사	인도·중국·한국 불교사, 동남아 불교사
불 교 사 상	중관, 유식, 화엄, 선사상 등
경 전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등
특 강	사찰음식, 다도, 불교 사회복지 실천, 수련회, 성지순례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